



0.4  
9 771739 284009  
ISSN 1739-2845

International Magazine of Space Design | bob

THAM & VIDEGÅRD ARKITEKTER |  
H2O ARCHITECTES | CASA SON  
VIDA | 9H HOTEL | BAR FOUFOU |  
bob COORDINATION SCHOLTEN  
& BAIJINGS

bob collection:

**FASHION SHOWROOM**

# ART & SPACE

## SOPHEAP PICH



'1979' Installation View, 6th Asia Pacific Triennial, Gallery Of Modern Art, Brisbane, Australia, 2009-10

**Sopheap Pich** : Sopheap Pich was born in Battambang, Cambodia in 1971, and has emigrated to Amherst, Massachusetts in 1984. He received his BFA from the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nd MFA from the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Pich is Cambodia's most prominent contemporary artist who works primarily with bamboo and rattan to create free-flowing, biomorphic sculptures and installations. Last year, he participated two of Asia's prestigious art events: the Fukuoka Asian Art Triennale in Fukuoka, Japan, and the Asia-Pacific Triennial of Contemporary Art in Brisbane, Australia. He has also recently completed a major sculptural installation at the King Abdullah University in Saudi Arabia. Now Pich lives and works in Phnom Penh, Cambodia.

**소피엣 피치** : 소피엣 피치는 1971년 캄보디아 비탐방에서 태어나 1984년에 미국 매사추세츠 주 앰허스트로 이주했다. 매사추세츠 대학교에서 미술학사를 학위를 받았고 시카고 아츠스쿨에서 미술석사 학위를 받았다. 피치는 캄보디아에서 가장 유명한 현대미술가로서 주로 대나무와 등나무 줄기를 사용하여 자유로이 흐르는 느낌의 생물형 조각물과 설치물을 만든다. 작년에는 아시아의 유명 미술 행사 두 곳에 참여했는데, 그 하나는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후쿠오카 아시아 아트 비엔날레이고, 또 하나는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즈번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현대 미술 트리엔날레이다. 또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킹압둘라 대학교에서 대형 조각 설치물을 완성했다. 현재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살며 작업하고 있다.



Raft, 2009, Bamboo, Rattan, Wood, Wire, Metal Bolts

Sopheap Pich's work connects us to a simpler understanding of the process of hands-on art making. In taking the natural forms of bamboo and rendering them in metal, he addresses issues of time, memory, and the body, often relating to childhood recollections of life during the Khmer Rouge period (1975-1979). For 'Pulse With', his first New York solo exhibition at Tyler Rollins Fine Art last year, he has created a dynamic group of sculptural forms derived from the internal organs of the human body, such as the heart, lungs, and intestines. These function as visceral reminders of the past and of the intimate, physical connections between human beings. <Raft> is composed of what looks like a tall building supported by what look like elongated boats or bombs. It is a critique of the displacement resulting from global investment and real estate development in the Beng Kok area of Phnom Penh, where his studio is located. Beng Kok means reed in the Khmer language. People fish in this lake, but it will soon be completely paved in to make room for redevelopment.

소펍 피치의 작업은 직접 수공업으로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을 더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대나무의 자연 형태를 가져와 단단한 금속으로 표현함에 있어 그는 시간, 기억, 신체 등의 문제를 다루며, 크메르루주 시대(1975~1979)에 겪은 어린 시절의 기억과 연관시키는 때도 많다. 작년 타이일러롤린스 미술관에서 열린 그의 첫 뉴욕 단독전시인 '더 펄스 위드'를 위해 염통, 허파, 창자 등과 같은 인체 장기에서 따온 역동적 느낌의 조각물을 제작했다. 이들 작품은 과거, 그리고 인간 간의 물리적이고도 친밀한 연계를 아랫배에서 기억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래프트>는 기다란 배 내지 폭탄 같아 보이는 것들이 높다란 건물 같아 보이는 것을 떠받치고 있는 형상이다. 이는 그의 스튜디오가 자리 잡고 있는 프놈펜의 벵콧 지역에서 해외 자본의 투자로 인해 부동산 개발이 일어나면서 주민이 쫓겨나는 상황을 비판한 것이다. 크메르 말로 벵콧은 갈대호수라는 뜻이다. 사람들은 이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지만 머지않아 재개발을 위해 완전히 매립될 것이다.

# ART & SPACE

SOPHEAP PICH



'The Pulse with', Installation view



For <Cycle>, he connected two stomachs together to suggest a kind of movement or family ties, old to young again. What he learned when he was a pre-med student have influenced his anatomical works. The integration of these disciplines and professions is evident in <Suture>, which is composed of what looks like a pair of kidneys joined by a tube of some sort that has perhaps been sutured into place. Many of his rattan sculptures refer to human organs such as lungs and stomachs because Cambodians have a lot of health problems, particularly stomach problems after the poor nutrition resulting from the pol pot repression.

The work <Caged Heart> started from a couple lines from a song by a Cambodian blues player. He plays a two-string instrument and he talks about that he is an old person and cannot change much. One of the metaphors he uses is, "What can I do? My hear is overgrown with mushrooms. How can I change, how can I do this?" Artist was trying to find something that I could make with that kind of sentiment. Placed inside the small cage are tools used by farmers and other manual laborers. Pich also intended it to have multiple layers of meanings, as that of a good-hearted farmer or any blue-collar worker, but it could also be the heart of wealthy, greedy, and ungenerous man whose heart is damaged and corrupt.

Pich was commissioned as part of the KAUST international Art Program to create two artworks for the Seacourt Plaza university campus. <Upstream> is inspired by fish traps and aims to express movement visually. It appears to shoot upwards from the water to 8.9m high, and is made from laser cut electropolished stainless steel.

His work process is completely hand-made, from the cutting of the rattan strands to the distance of the grids. Pich still go to the countryside to cut his own bamboo. He use rulers or measuring tape only at the end in order to know the size of the work. He rely more on instinct than a specific plan as a way to work. His sculptures are reflections of past and present moments in the making. They also reflect the condition of his life and his own process of becoming- his childhood spent in Cambodia in the 1970s, his life in the United States, his travels and return to Cambodia have all been informed by constant physical, mental and emotional resistance, adjustment and surrender.

<싸이클>은 창자 둘을 연결한 것으로, 늙은이에서 다시 젊은이로 이어지는 가족의 유대 내지 일종의 움직임을 암시한다. 의과대학 예과 학생 시절에 배운 내용이 그의 해부학적 작업에 영향을 미쳤다. 이들 학문 및 직업을 통합한 흔적은 <봉합>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한 쌍의 콩팥 같아 보이는 것이 일종의 튜브 같은 것으로 연결돼 있는데 어찌면 봉합해 놓은 것인지도 모른다. 그가 제작한 등나무 줄기 조각물 중에는 허파나 위 같은 인체의 장기를 나타내는 것이 많은데, 캄보디아인들은 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많이 겪기 때문이다. 특히 위에 문제가 많은데, 폴 포트의 압제로 인해 영양상태가 나빴던 후유증 때문이다.

<간한 심장>은 캄보디아의 어느 블루스 연주자가 지은 노래 가사에서 출발했다. 그는 줄이 둘 있는 악기를 연주하는데, 자기는 나이가 많아 많이 바뀌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가 들려주는 한 가지 비유는 이렇다. "내가 어쩔 수 있겠소? 내 심장은 버섯으로 뒤덮였는데. 내가 어떻게 바뀔 수 있겠소? 내가 어찌 그럴 수 있겠소?" 작가는 그런 종류의 감정을 가지고 만들 만한 게 무엇이 있을지 찾아내려 하고 있었다. 작은 조롱 안에는 농부나 육체노동자가 사용하는 도구가 들어 있다. 피치는 또 이 작품이 여러 겹의 의미를 담도록 의도했는데, 예를 들면 선량한 농부나 블루칼라 노동자의 심장일 수도 있지만, 부유하나 욕심이 많고 인색한 사람의 망가지고 타락한 심장일 수도 있다.

피치는 KAUST 국제 아트프로그램의 일원으로서 시코트플라자 대학교 캠퍼스를 위해 두 점의 작품 제작을 위촉 받았다. <업스트림>은 물고기를 잡는 통발에서 영감을 얻었으며, 움직임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수면으로부터 8.9m 높이로 솟구치는 듯이 보이며, 전기광택 가공한 스테인리스스틸을 레이저로 절단하여 만들었다.

그의 작업은 등나무 줄기를 자르는 작업에서부터 격자의 간격을 결정하는 작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전적으로 수작업으로 이루어진다. 피치는 지금도 시골에 나가 직접 대나무를 잘라다 쓴다. 그가 자나 줄자를 쓸 때는 작품이 마무리된 다음 작품의 크기를 알아내기 위해 치수를 잴 때뿐이다. 작업 방법에서 그는 구체적 도면보다는 본능에 더 의존하는 쪽이다. 그의 조각 작품은 과거 그리고 만들어지는 도중에 있는 현재에 대한 반추이다. 또 그 자신의 삶의 조건, 그리고 뭔가로 되어 가는 도중에 있는 그의 삶에 대한 반추이기도 하다. 1970년대에 캄보디아에서 보낸 어린 시절, 미국에서 지낸 생활, 여행과 캄보디아로 돌아온 것 등 모두가 끊임없는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저항과 조정과 굴복을 거친 것이다.

글 : 권이선 / NY Projects, Inc., 편집 : 이하민 기자 \*\*\* 저작권은 작가와 Tyler Rollins Fine Art에 있다.